

실험설비 확충 위한 기부금 전달

과총 **崔亨燮** 회장, **忠南대**



▲ 과총 **崔亨燮**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월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장실에서 2년간 충남대 석좌교수로 재임하면서 받은 연구활동비 4,800만원을 충남대 **趙統來** 국책사업단장에게 전달했다

국책공과대학인 충남대(총장 **尹亨遠**)의 국책사업단이 주도하는 동교의 “신소재21세기위원회”가 충남대를 “한국의 신소재연구메카”로 육성키 위해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책사업단은 94년부터 98년

장학금수혜 및 우수교수진 확보책 등에 입각하여 교수1인당 학생수 16.2명으로 전국의 국책 대학중 가장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함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보율도 교육부 기준령대비 150%수준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기반을

까지 총250억원의 교육부 지원과 동교의 열성적인 연구개발투자에 힘입어 국책과제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결과 논문44편, 특허15건, 공업화 12건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학생의 70%

구축하고 있다. 특히 동교 국책사업단에서는 실험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해외어학연수 및 일본기업체 현장실습실시 등 공과대학생들의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을 주변대학과 공유키로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같은 학교발전방안 추진에 때맞춰 지난 96년부터 98년 3월까지 동교의 석좌교수로 봉직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崔亨燮** 회장이 지난 7월 28일 충남대에 2년간의 석좌교수연구활동비 전액인 4,800만원의 기부금을 동교 **趙統來** 국책사업단장에게 전달하였다. **崔亨燮** 박사는 석좌교수 취임후 전국의 사계 권위자 11명을 규합, 충남대에 신소재21세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신소재연구방향을 정상궤도에 올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후진들에게 당부하면서 최근 그 직책을 마무리했다.

'98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추계워크샵개최 협의

崔亨燮 과총회장, **재미과학협** **李起東** 회장 접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崔亨燮** 회장은 8월 7일 오전 과총 회장실에서 재미과학협 **李起東** 회장의 예방을 받고 11월 9~12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98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추계워크샵개최, KBS해외동포상특별상부문 재미과학협추천, 재미과학협25년사발간, '99 재미과학협 정부지원예산 대책 등을 협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李傑三** 과총사무총장이 배석했다.



▲ 과총 **崔亨燮** 회장이 재미과학협 **李起東**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